

(고등국어 예비단계) | 발음하는 대로 쓰기 |

| 소 개 |

1. 발음

고등학교 1학년 국어에서는 ‘음운의 변동’을 다룹니다. 물론 지난 「고등학교 때 가져가야 할 중학문법」에서 보신 바와 같이,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은 ‘음운’이 무엇인지 이미 배웠습니다.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?

1. 음운의 개념

- (1) 개념: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
- (2) 모음과 자음

① 모음: 소리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이 입안에서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

ㅏ, ㅑ, ㅓ, ㅕ, ㅗ, ㅛ, ㅜ, ㅠ, ㅡ, ㅚ, ㅜ, ㅠ, ㅡ, ㅝ, ㅟ, ㅞ, ㅟ, ㅠ
--

② 자음: 소리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이 목 안 또는 입안에서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

ㄱ, ㅋ, ㆁ, ㄷ, ㅌ, ㄴ, ㄹ, ㅁ, ㅂ, ㅃ, ㅅ, ㅆ, ㅇ, ㅈ, ㅊ, ㅊ, ㅋ, ㆁ, ㅍ, ㅑ, ㅎ
---

2. 우리말의 모음 체계

(1) 단모음

- 개념: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모음
- 단모음의 분류

혀의 최고점의 위치 혀의 높낮이	입술 모양	전설 모음		후설 모음	
		평순 모음	원순 모음	평순 모음	원순 모음
고모음		ㅣ	ㄱ	ㅡ	ㅓ
중모음		ㅑ	ㅕ	ㅗ	ㅛ
저모음		ㅓ		ㅕ	

(2) 이중 모음: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발음 도중에 변하는 모음

ㅑ, ㅓ, ㅕ, ㅗ, ㅛ, ㅜ, ㅠ, ㅡ, ㅚ, ㅜ, ㅠ, ㅡ, ㅝ, ㅟ, ㅞ, ㅟ, ㅠ
---

3. 우리말의 자음 체계

소리 내는 방법	소리 나는 위치	입술소리	잇몸소리	센입천장 소리	여린입천장 소리	목청소리
		파열음	ㅍ ㅑ ㅑ	ㅑ ㅑ ㅑ	ㅑ ㅑ ㅑ	ㅑ ㅑ ㅑ
마찰음	예사소리		ㅑ			ㅎ
	된소리		ㅑ			
	가센소리					
파찰음	예사소리			ㅑ		
	된소리			ㅑ		
	가센소리			ㅑ		
비음		ㅑ	ㄴ		ㅇ	
유음			ㄹ			

(1) 소리 나는 위치에 따른 자음의 분류

- 입술소리: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
- 잇몸소리: 혀끝과 윗잇몸 사이에서 나는 소리
- 센입천장소리: 혀바닥과 센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
- 여린입천장소리: 혀 뒷부분과 여린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
- 목청소리: 목청 사이에서 나는 소리

(2) 소리 내는 방법에 따른 자음의 분류

- 파열음: 입안의 어떤 위치에서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일시에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
- 마찰음: 입안이나 목청 사이의 통로를 좁히고 그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어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
- 파찰음: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막았던 자리를 조금 열고 좁은 틈 사이로 공기를 내보내어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
- 비음: 입안의 통로를 막았다가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
- 유음: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혀끝을 윗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러보내면서 내는 소리

(3) 소리의 세기에 따른 자음의 분류

- 예사소리: 성대를 편안히 둔 상태에서 발음되며 숨이 거세게 나오지 않음.
- 된소리: 성대 근육이 긴장되며 숨이 거세게 나오지 않음.
- 거센소리: 성대 근육이 긴장되며 숨이 거세게 나옴.

4. 소리의 길이

- 국어에는 같은 모음이라 하더라도 소리의 길이가 길고 짧음에 따라 단어의 뜻이 구별되는 경우가 있음. ‘소리의 길이’는 뜻을 구별하여 준다는 점에서 모음이나 자음과 마찬가지로 ‘음운의 역할’을 함.

예) 밤[粟][밤:]-밤[夜][밤], 말[語][말:]-말[馬][말], 병[病][병:]-병[瓶][병]

고등 국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‘숙지했다’고 가정하고 교과서 진도를 진행합니다. 따라서 아직 숙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학교 국어 수업을 듣는 경우에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이지요.

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숙지하는 것과 더불어, 여러분께서 고등학교에 올라가기 전에 미리 연습해 두면 좋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**‘내가 발음한 대로 써보기’**입니다.

이것이 중요한 이유는, 여러분이 고1 때 배울 ‘음운의 변동’이라는 부분이 대놓고 이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이 단어의 발음을 본인이 발음한 대로 적지 못한다면, 음운 변동 규칙을 아무리 외워도 여러분은 뭔가 잘 이해되지 않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만큼 중요한 단계입니다.

## II. 발음을 적어 보기

실제로 여러분은 우리말을 잘 발음합니다. 제가 오랫동안 가르치면서도 ‘발음 자체’를 못 해서 학생을 가르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으니까요. 물론 어떤 단어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발음을 잘 모르고, 오해한 채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. (대체로 95%정도의 단어는 여러분이 올바르게 발음하고, 5%정도의 단어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.)

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. 여러분은 모국어 단어를 자연스럽게 발음하지만, 잘 쓰지는 못합니다. 저는 매년 고등학생들과 학기를 시작할 때 이 연습을 시키는 데, 단 한 번도 즐거운 수업이 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. 모두들 외국인이 된 기분에 빠질 수 있습니다.

일단 여러 음운변동 규칙들을 배우기 전에,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내용 중 하나를 원칙으로 가지고 있도록 합시다.

**“받침의 발음: ‘ㄱ, ㄴ, ㄷ, ㄹ, ㅁ, ㅂ, ㅇ’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.”**

**자 그럼 연습을 시작해 볼까요?**

꽃 위	➡	[__ 꼬뒤__]
꽃 안 <sup>1)</sup>	➡	[__ ]
몫 <sup>2)</sup>	➡	[__ ]
앞고 <sup>3)</sup>	➡	[__ ]
물고기 <sup>4)</sup>	➡	[__ ]
싫다 <sup>5)</sup>	➡	[__ ]
외곶 <sup>6)</sup>	➡	[__ ]
핥고 <sup>7)</sup>	➡	[__ ]
되어 <sup>8)</sup>	➡	[__ ]
신발을 “신고” <sup>9)</sup>	➡	[__ ]
샷일꾼 <sup>10)</sup>	➡	[__ ]

갈등 <sup>11)</sup>	➡	[__ ]
깎다 <sup>12)</sup>	➡	[__ ]
숯불 <sup>13)</sup>	➡	[__ ]
앞날 <sup>14)</sup>	➡	[__ ]
대관령 <sup>15)</sup>	➡	[__ ]
그렇게 <sup>16)</sup>	➡	[__ ]
젖는다 <sup>17)</sup>	➡	[__ ]
일시 <sup>18)</sup>	➡	[__ ]
할 것을 <sup>19)</sup>	➡	[__ ]
갈 데가 <sup>20)</sup>	➡	[__ ]
하얀 “뚝 만이” <sup>21)</sup>	➡	[__ ]
뚝 위에 <sup>22)</sup>	➡	[__ ]
널찍한 <sup>23)</sup>	➡	[__ ]
밭+이랑 <sup>24)</sup>	➡	[__ ]
벼훅이 <sup>25)</sup>	➡	[__ ]
날알 <sup>26)</sup>	➡	[__ ]
받히었다 <sup>27)</sup>	➡	[__ ]
엎힌 <sup>28)</sup>	➡	[__ ]
우리집이오 <sup>29)</sup>	➡	[__ ]
뒷머리 <sup>30)</sup>	➡	[__ ]
예삿일 <sup>31)</sup>	➡	[__ ]
살피어 <sup>32)</sup>	➡	[__ ]
비어 <sup>33)</sup>	➡	[__ ]
수척한 <sup>34)</sup>	➡	[__ ]
까맣게 <sup>35)</sup>	➡	[__ ]



괜찮아요36) → [ ]  
 샅바느질37) → [ ]  
 뉘달하다38) → [ ]  
 밝히려39) → [ ]  
 갯장어40) → [ ]  
 팔죽41) → [ ]  
 빗살42) → [ ]  
 해돋이43) → [ ]  
 꽃가루44) → [ ]  
 못하고45) → [ ]  
 값만46) → [ ]  
 따뜻한47) → [ ]  
 옷나무48) → [ ]  
 가닥나무49) → [ ]  
 잣나무50) → [ ]  
 다섯째51) → [ ]  
 거짓말52) → [ ]  
 화살나무53) → [ ]  
 닻나무54) → [ ]  
 백만55) → [ ]  
 나뭇잎56) → [ ]  
 부엌문57) → [ ]  
 작년58) → [ ]  
 쉬는59) → [ ]  
 물놀이60) → [ ]

굳이61) → [ ]  
 닭장62) → [ ]  
 꽃마당63) → [ ]  
 굳히다64) → [ ]  
 닫히다65) → [ ]  
 꽃말66) → [ ]  
 물난리67) → [ ]  
 급박한68) → [ ]  
 숨이불69) → [ ]  
 갈증70) → [ ]  
 논일71) → [ ]  
 갇혀있다72) → [ ]  
 읊조리다73) → [ ]  
 할 바를74) → [ ]  
 책잡히다75) → [ ]  
 술하다76) → [ ]  
 넓적다리77) → [ ]  
 할 적에78) → [ ]  
 뭉뭉이79) → [ ]  
 책 넣는다80) → [ ]  
 놓는81) → [ ]  
 밟는82) → [ ]  
 굶는83) → [ ]  
 칼날84) → [ ]  
 신라85) → [ ]



뚫는86) → [ ]

훤네87) → [ ]

공권력88) → [ ]

닭고기89) → [ ]

갈 방향90) → [ ]

흙을91) → [ ]

밥솥을92) → [ ]

만형93) → [ ]

햇볕이94) → [ ]

몫만95) → [ ]

한라산96) → [ ]

식용유97) → [ ]

색연필98) → [ ]

국물99) → [ ]

늑막염100) → [ ]

할 수는101) → [ ]

등산로102) → [ ]

법학103) → [ ]

즈러밟고104) → [ ]

히읃105) → [ ]

할 세라106) → [ ]

발전107) → [ ]

헛웃음108) → [ ]

뻘대도109) → [ ]

묻히다110) → [ ]

홀이불111) → [ ]

급히다112) → [ ]

넓둥글다113) → [ ]

줄넘기114) → [ ]

밭일115) → [ ]

단련116) → [ ]

신림117) → [ ]

종로118) → [ ]

입버릇119) → [ ]

능력120) → [ ]

장미꽃만121) → [ ]

닿는122) → [ ]

밭갈이123) → [ ]

꽃다발124) → [ ]

눈요기125) → [ ]

꽃 한 송이126) → [ ]

뚫네127) → [ ]

곧이듣다128) → [ ]

백분율129) → [ ]

옴는130) → [ ]

잡히다131) → [ ]

앉아서132) → [ ]

뒹는133) → [ ]

측량134) → [ ]

미달이135) → [ ]



- 샷일136) → [\_\_\_\_\_]
- 솔잎137) → [\_\_\_\_\_]
- 흙냄새138) → [\_\_\_\_\_]
- 산뜻하다139) → [\_\_\_\_\_]
- 넓고140) → [\_\_\_\_\_]
- 답고141) → [\_\_\_\_\_]
- 아랫마을142) → [\_\_\_\_\_]
- 텃마당143) → [\_\_\_\_\_]
- 뭉고144) → [\_\_\_\_\_]
- 귀찮은145) → [\_\_\_\_\_]
- 역할146) → [\_\_\_\_\_]
- 콩엿147) → [\_\_\_\_\_]
- 뽕느라148) → [\_\_\_\_\_]
- 넓더라149) → [\_\_\_\_\_]
- 직행열차150) → [\_\_\_\_\_]
- 짧네151) → [\_\_\_\_\_]
- 설익다152) → [\_\_\_\_\_]
- 날날이153) → [\_\_\_\_\_]
- 저녁연기154) → [\_\_\_\_\_]
- 미단이155) → [\_\_\_\_\_]
- 고깃국156) → [\_\_\_\_\_]
- 젓더미157) → [\_\_\_\_\_]
- 긋병158) → [\_\_\_\_\_]
- 자릿세159) → [\_\_\_\_\_]
- 찾잔160) → [\_\_\_\_\_]

- 길가161) → [\_\_\_\_\_]
- 손등162) → [\_\_\_\_\_]
- 등불163) → [\_\_\_\_\_]
- 술상164) → [\_\_\_\_\_]
- 몸짓165) → [\_\_\_\_\_]
- 잇몸166) → [\_\_\_\_\_]
- 숨이불167) → [\_\_\_\_\_]
- 단풍잎168) → [\_\_\_\_\_]
- 꽃망울169) → [\_\_\_\_\_]
- 무릎에170) → [\_\_\_\_\_]
- 끝인사171) → [\_\_\_\_\_]
- 냥는172) → [\_\_\_\_\_]
- 셋노랑다173) → [\_\_\_\_\_]
- 볶거나174) → [\_\_\_\_\_]
- 웃놀이175) → [\_\_\_\_\_]
- 밥물176) → [\_\_\_\_\_]
- 말며느리177) → [\_\_\_\_\_]
- 역마살178) → [\_\_\_\_\_]
- 얇는179) → [\_\_\_\_\_]
- 속력도180) → [\_\_\_\_\_]
- 덧쌍는181) → [\_\_\_\_\_]
- 맞붙임182) → [\_\_\_\_\_]
- 들녁을183) → [\_\_\_\_\_]
- 순환론184) → [\_\_\_\_\_]
- 봄여름185) → [\_\_\_\_\_]



**올바른 발음**

- 1) [꼬단]
- 2) [목]
- 3) [안꼬]
- 4) [물꼬기]
- 5) [설따]
- 6) [웨골/외골] 둘 다 인정합니다.
- 7) [할꼬]
- 8) [되여/되어] 둘 다 인정합니다.
- 9) [신꼬]
- 10) [상널꾼]
- 11) [갈똥]
- 12) [각따]
- 13) [순뿔]
- 14) [암날]
- 15) [대팔령]
- 16) [그러케]
- 17) [전는다]
- 18) [일씨]
- 19) [할꺼슬]
- 20) [갈떼가]
- 21) [돈마니]
- 22) [도뒤에/도뒤에] 둘 다 인정합니다.
- 23) [널찌칸]
- 24) [반니랑]
- 25) [벼홀치]
- 26) [나달]
- 27) [바치얼따]
- 28) [언친]
- 29) [우리지비요/우리지비오] 둘 다 인정합니다.
- 30) [뉘머리]
- 31) [예산닐]
- 32) [살피여/살피어] 둘 다 인정합니다.
- 33) [비여/비에] 둘 다 인정합니다.
- 34) [수처칸]
- 35) [까머케]
- 36) [괘차나오]
- 37) [삭빠느질]
- 38) [닥따라다]
- 39) [발키어]
- 40) [괘짱어]
- 41) [관쪽]
- 42) [빈쌀]
- 43) [해도지]
- 44) [꼰까루]
- 45) [모타고]
- 46) [감만]
- 47) [따뜨탄]
- 48) [온나무]
- 49) [가당나무]
- 50) [잔나무]
- 51) [다선째]
- 52) [거진말]
- 53) [화살라무]
- 54) [당나무]
- 55) [뱅만]
- 56) [나문닙]
- 57) [부영문]
- 58) [장년]
- 59) [성느]
- 60) [물로리]
- 61) [구지]
- 62) [닥짱]
- 63) [꼰마당]
- 64) [구치다]
- 65) [다치다]
- 66) [꼰말]
- 67) [물랄리]
- 68) [급빠칸]

- 69) [숨니불]
- 70) [갈쭙]
- 71) [논닐]
- 72) [가치얼따]
- 73) [읍쪼리다]
- 74) [할빠를]
- 75) [책짜피다]
- 76) [수타다]
- 77) [넙쩍따리]
- 78) [할저계]
- 79) [몽목씨]
- 80) [챙닌는다]
- 81) [논느]
- 82) [밤느]
- 83) [궁느]
- 84) [칼랄]
- 85) [실라]
- 86) [똥른]
- 87) [할레]
- 88) [공뀐녁]
- 89) [닥꼬기]
- 90) [갈뽕양]
- 91) [홀글]
- 92) [뱌쪼틀]
- 93) [마텃]
- 94) [할뻬치]
- 95) [몽만]
- 96) [할라산]
- 97) [시공뉴]
- 98) [생년필]
- 99) [궁물]
- 100) [능망념]
- 101) [할쭙느]
- 102) [등산노]
- 103) [버팍]
- 104) [즈러뱌꼬]
- 105) [히음]
- 106) [할썰라]
- 107) [뱌쩡]
- 108) [허두슴]
- 109) [뻬때도]
- 110) [무치다]
- 111) [훈니불]
- 112) [구피다]
- 113) [넙똥글다]
- 114) [줄림끼]
- 115) [반닐]
- 116) [달런]
- 117) [실림]
- 118) [중노]
- 119) [입뻬를]
- 120) [능녁]
- 121) [장미꼰만]
- 122) [달른]
- 123) [뱌까리]
- 124) [꼰따뱌]
- 125) [눈노기]
- 126) [꼬탄송이]
- 127) [똥레]
- 128) [고지들따]
- 129) [뱌뻬눌]
- 130) [음느]
- 131) [자피다]
- 132) [아라서]
- 133) [당느]
- 134) [층냥]
- 135) [미다지]
- 136) [상닐]
- 137) [솔립]



- 
- 138) [홍냄새]
  - 139) [산뜨타다]
  - 140) [널꼬]
  - 141) [담꼬]
  - 142) [아랜마을]
  - 143) [툃마당]
  - 144) [물꼬]
  - 145) [귀차는]
  - 146) [여칼]
  - 147) [콩년]
  - 148) [뽕느라]
  - 149) [널떠라]
  - 150) [지깁널차]
  - 151) [째네]
  - 152) [설릭따]
  - 153) [난나치]
  - 154) [저녕년기]
  - 155) [미다지]
  - 156) [자릴쑤]
  - 157) [째떠미]
  - 158) [곶뽕]
  - 159) [자릴쑤]
  - 160) [찰째]
  - 161) [길까]
  - 162) [손뽕]
  - 163) [등뽕]
  - 164) [술쌍]
  - 165) [몸째]
  - 166) [인뽕]
  - 167) [숨니불]
  - 168) [단풍닙]
  - 169) [꼰망울]
  - 170) [무르꺼]
  - 171) [끄던샤]
  - 172) [난는]
  - 173) [센노라타]
  - 174) [불꺼나]
  - 175) [운노리]
  - 176) [밤물]
  - 177) [만며느리]
  - 178) [영마쌀]
  - 179) [할른]
  - 180) [송녀또]
  - 181) [툃싼는]
  - 182) [만뽕침]
  - 183) [들러클]
  - 184) [순환논]
  - 185) [봄녀름]